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극심한 변동성 속 반등한 국내 증시, 삼성전자 시총 1위 탈환

- 반도체 반발 매수세 유입 속 삼성전자 시총 1위 탈환
- 변동성 최고조 속 개별 이슈 민감도가 높아진 국내 증시
- 반발 매수세 유입 속 소외주 중심 순환매 확산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News] 삼성전자: 두렵지 않다

- 최근 주가 변동성이 심화되며, 때아닌 고점 논란이 제기.
- 흔들릴 필요가 없는 시점. 이익과 주주환원의 동반 개선을 기대 가능.
- 목표주가 560,000원과 매수의견 유지.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극심한 변동성 속 반등한 국내 증시, 삼성전자 시총 1위 탈환

- 반도체 반발 매수세 유입 속 삼성전자 시총 1위 탈환
- 변동성 최고조 속 개별 이슈 민감도가 높아진 국내 증시
- 반발 매수세 유입 속 소외주 중심 순환매 확산

반도체 반발 매수세 유입 속 삼성전자 시총 1위 탈환

국내 증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 다만 마이크로 실적 발표와 미국 5월 PCE 물가 지표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잔존, 변동성 장세를 연출.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한국 반도체 업종 급락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반도체주 중심의 낙폭이 두드러짐. 마이크로론(-13.2%), 샌디스크(-13.6%) 등 큰 폭으로 하락하며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에도 부정적. 이에 시간 외 거래에서도 글로벌 증시 내 반도체 투자심리 둔화가 연쇄적으로 확산되며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극심한 변동성 속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재차 유입. 그중 삼성전자는 9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재차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며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확대.

반도체: 삼성전자(+9.8%), SK하이닉스(+1.0%), 한미반도체(+4.7%)

변동성 최고조 속 개별 이슈 민감도가 높아진 국내 증시

현재 코스피의 연간 변동성을 나타내는 VKOSPI는 95.45%로 최고치를 경신. 이를 월간 및 일간 변동성으로 환산하면 각각 27.55%, 6.01% 수준으로, 국내 증시 내 변동성이 한층 심화.

이에 따라 개별 이슈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진 모습. 금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위축. 이에 코스피는 장중 하락 반전해 낙폭을 확대하며 변동성이 확대.

한편, 국내외 연기금 리밸런싱에 따른 매물 폭탄 우려가 존재. 다만 6월 내 리밸런싱을 위한 매물이 6월 말 단기간에 출회될 가능성은 제한적.

반발 매수세 유입 속 소외주 중심 순환매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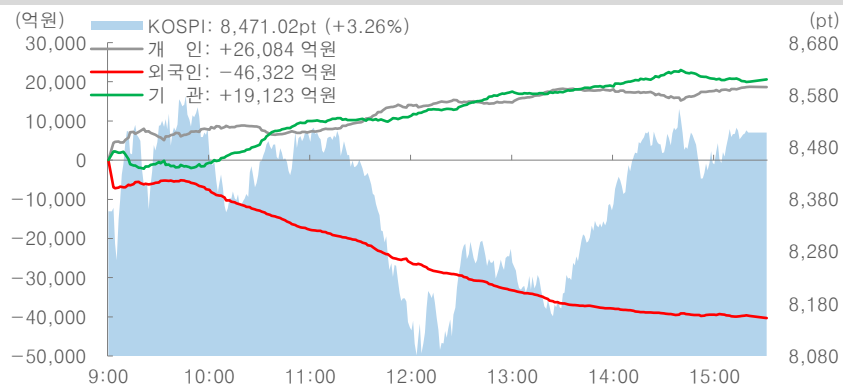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시장 소외주 강세 전개. 제약/바이오 업종은 바이오 USA 개막에 따른 기대감 유입되며 전반적으로 상승.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8.8%), 한올바이오파마(+18.9%)

화장품: 에이피알(+4.4%), 달바글로벌(+8.9%), 한국콜마(+3.6%)

정유/화학: S-Oil(+5.7%), 롯데케미칼(+6.1%), 대한유화(+8.3%)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삼성전자 (005930)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6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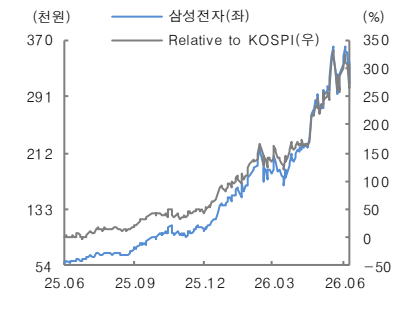
340,500

(26.06.24)

반도체업종

KOSPI	8471.02
시가총액	2,161,96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32.51%
자본금(보통주)	77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62,500원 / 59,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7,157억원
외국인지분율	47.43%
주요주주	삼성생명보험 외 15 인 19.70% 국민연금공단 7.8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6.4	79.5	206.5	462.8
상대수익률	7.8	17.7	48.6	106.2



두렵지 않다

- 최근 주가 변동성이 심화되며, 때아닌 고점 논란이 제기.
- 흔들릴 필요가 없는 시점. 이익과 주주환원의 동반 개선을 기대 가능.
- 목표주가 560,000원과 매수의견 유지.

투자전략: 두렵지 않다

목표주가 560,000원과 매수의견 유지. 최근 주가 변동성이 심화되며, 때아닌 고점 논란이 불어지고 있으나, 이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

1. 견고해지는 이익의 성벽

2Q26 실적은 성과급 총당금 인식 영향 (DS 사업부문: 10조 후반 추정)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영업이익 전망: 대신증권 82조원, 컨센서스 86.8조원). 다만, 이는 **단발성 이슈에 불과**.

AI 시장 선점을 위한 고객 전반의 설비투자 상황과 제한적 생산 증가 속, 반도체 수급 괴리율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의 기울기는 보다 날카로워질 것**. 2027년에는 공격적 평가 정상화 노력 속 2H23-1H25에 경험했던 **HBM 주도 DRAM ASP 성장이 재현**될 수 있는 환경 (2027년 HBM ASP: 전년대비 65% 상승 전망). 이를 반영하여,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추가 상향 (기준: 503조원, 신규: 532조원).

2. 자사주 매입과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

임직원 성과급 지급 목적의 자사주 매입 재개와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 (특별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등을 기대. 연내 창출될 FCF가 300조원 이상 (M&A 차감 전)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주주환원 외에도 DX 사업부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 M&A 또한 추진 가능한 환경.

3. 베일에 가려진 기회

시장에서는 메모리반도체 외 사업부문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 DX 사업부문의 경우, 부품 가격 인상 및 경쟁 심화에 따른 하반기 손익 악화를, 비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성과급 총당금 확대에 따른 적자 기간의 장기화를 우려.

시장의 우려는 합리적이라 생각. 다만, 기술 경쟁력 회복 구간에서 창출 가능한 반도체 사업부문의 시너지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장 빛나는 구간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의 가치가 부각될 때. 해당 가치가 부각되기 위해선 파운드리에서의 추가 수주가 필요.
- 당사의 경우, 해당 가능성에 있어 긍정적. 제반 여건 (최선단공정 수출 안정화, 고객 수요 증가율을 하회하는 파운드리 업계의 Capa 증가율 등은 Upcycle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최적화된 국면에 위치.
- 모바일 AP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HBM Base Die, Auto, 모바일 AP, ASIC 등으로 대응 영역을 확대해갈 것으로 전망.
- 단기 손익은 성과급 총당금 영향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나, 내재된 사업 경쟁력의 개선 가치를 감안 시, Re-Rating의 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 현재와 같은 저평가 구간에선 해당 가치에 대한 Pricing이 탄력적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